

# 성령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16-17

김요셉 준목님

## 서론

우리교회에 대해서, 나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성도들이 도무지 늙지를 않는다. (웃음) 늙는 것은 램네티밖에 없다. 그래야 성장해서 어른이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안 늙는다. 권사님들도 그렇고. 장례식에 한번 갔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연로해 보였다. 80, 90세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연세 여쭙봤더니 깜짝 놀랐다. 최목사님보다 훨씬 어린 분이였다. (웃음) 완전히 늙으셔서 백발이 되셨던데. 또 느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싶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다. (웃음) 응답을 계속 받으시기 바란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누구신가?>이다. 말씀을 보기 전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다.

(1)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 우리 경우에도 100㎡ 반경 안에 8개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많은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전혀 못 주고 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거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을 거의 모르고 있다. 목사님 한 분을 이번 주에 뵈었는데, 첫 마디가 방언 받았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였다.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고 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도, 나에게 대해서도 예언을 단번에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다. “나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드렸다. 정중하게 부탁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전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이야기했다. “전도자 되지 말고 신학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어야 성도들도 신학자가 된다.” 확실히 답을 못 주고 있구나 싶었다. 이분의 이야기다.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언이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접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그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탁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방언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보라. 구원받은 정확한 증거가 무엇인가? 요일5:11-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다.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른 증거다. 그 외의 것은 거짓말이다. 증거는,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2)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모든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흑암으로 덮여 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더라도, 한 번은 가 보라. 물론 경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램네티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다. 거의 찌르고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램네티가 보는 시각도 그렇게 잡혀 있다. 경제도, 무조건 많이 벌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램네티에게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지식이, 하나님 없는 지식이다. 학교는 이미 후대들을 포기하고 있다. 후대들도 학교에 대

해 기대하지 않는다. 전부 일탈하는 데로 간다. 배우면 사람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학교 가면 못된 것만 다 배워온다. 그 정도로 가 버렸다. 그러니까 현상이 완전히 흑암이 되었다.

(3) 그 결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창1:20이다. 흑암, 혼돈, 공허다. 나는 아까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눈물이 났다. 그분의 아들이 생각나서 너무 한이 맺히는 것이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흑암, 혼돈, 공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체험해 보지 못했으니 미래가 없는 것이다. 선진국, 후진국,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이 다 똑같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졌다. 젖을 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내가 현장에서 본 내용들이다. 여러분이 한 번만 확인해 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든든히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해서 동역해 주었으면 좋겠다.

## 1. 성령은 누구신가?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다. 왜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한다. 이분은 지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신다.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느끼게도 하신다. 의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행동하게도 하신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2) 오늘 본문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이분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란다. 고전3:16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다.

(3) 에드윈 오어 박사는,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 지휘관,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라고 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야 할 길을 다 가르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다.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어떤 분은 신학교에서 한 학기동안 성령론을 들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이 질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했다고 한다.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웃음) 그런데 나는 현장에서 체험했다. 램네티가, 영접하고 나니까 전부 믿어지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진다. 전부 믿어진다. 삼위일체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그랬다. 복잡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믿어지는 것이다. 영접하는 순간에 전부 믿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된다. 나는 간단히 이야기한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삼위일체다. 현장에서 아이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에, 간단히 대답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셔야 하니까 성령님.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었다. 다행이었다. (웃음) 믿어지는 순간 끝이다.

(4)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왜 성도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 생각해 보라. 한국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해야 정확하다. 눈에 안 보이셔야 한다.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다른 능력,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이다.

(5)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였다. 창3:15, 출3:18, 사7:14, 전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6)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신 그리스도시다. 마 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행 1:1-8, 오신 그리스도시다.

(7)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있다. 구약 때에는 성령이 임재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셨다. 삼상16:14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와서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는다. 여러분도 고백하시기 바란다. 지금 계속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 2.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1) 롬8:2,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다. 정확하게는, 죄와 사단의 법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 권세 가진 자에게 잡혔던 우리가 해방된 것이다. 현장을 보라. 예수님 안 믿으면 전부 우상 섬긴다.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전부 사단 섬기고 있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이다. 이번에도 광복절 특사가 있었다. 대통령이 사인하는 순간 법적으로 해방받았다. 사면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란다.

(2) 고전3:16, 왜 오셔야 하는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다. 사실 구약에는 없었다. 그런데 신약에는,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다. 왜 오셔야 하는가? 성령내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다.

(3) 요16:14,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왜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다.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 결론

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셔야 하는가?

(1) 영적 세계 때문이다. 사람에게에는 육이 있지만 영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전부 모르고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자꾸 기준을 둔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것이다.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완전히 잘못 본 것이다.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영적인 세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이다.

(2)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복음으로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가면 그래서 완전 복음만 이야기해야 한다. 중직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복음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이다. 복음으로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가.

(3)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어떻게 받는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사람의 소리는 인도를 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면 100%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모두 훈련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훈련받는 것이다. 제2기 집중전도신학원 모집을 하고 있다.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될 때까지 하라. 훈련에 따라붙어라. 그래야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된다. 이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말씀 속에 있다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 가족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성령이 왜 오셔야 하는가. 성령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면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나.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증거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기복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한주일이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란다.